

유기용제 취급근로자가 호소하는 신체증상과 그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조정민, 이숙희
한양대학병원 산업보건센터

본 연구는 유기용제 취급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유기용제 취급근로자가 경험하는 신체증상 경험이 근로자의 질병행위와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동부지역 유기용제 취급 사업장 30개 업체중 유기용제 취급 근로자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4. 3. 24-1994. 5. 26.까지였다.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신체증상경험, 질병행위,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4영역으로 구성된 총 26문항의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 분석방법은 실수와 백분율,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경험하는 신체증상에서 '눈이 침침하다'가 69.4%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으로 나타났고 '머리가 아프다', '가래가 생긴다', '어지럽다'가 대상근로자 50% 이상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나타났다.
2.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대상자의 83.4%가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유기용제 물질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기용제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62.4%가 '유해하다'고 응답하였다.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른 유해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41.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유기용제 종류에 따른 유해도의 차이’ 항목이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유기용제 종류에 따른 유해도의 차이’ 항목이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증상 경험시 대상자의 27.8%가 진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방문 진료기관으로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자의 87.1%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증상 경험시 진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증상이 일시적이고 심각할 것 같지 않아서’가 74.1%로 나타났다.